

■ 12·3 비상계엄 충격 1년

“끝나지 않은 트라우마…그날의 군홧발 떠올라”

5·18 가두방송 참여자 이경희씨의 ‘되살아난 상흔’ 엄습하는 공포…며칠 밤 설치고 규탄 집회 못 나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1980년 5월’을 은몸으로 겪은 이들에게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특히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힌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 억울한 누명과 연행·구금으로 모진 시간을 겪었던 이들에게 ‘비상계엄’은 40년간 가슴 속에 묻혀있던 아픔을 다시 일깨웠다.

2일 이경희씨(65·여)는 지난해 12월 3일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문구가 등장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숨이 턱 막히고 몸이 떨릴 정도였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고 몸서리쳤다.

이씨는 1980년 5월 당시 차명숙·박영숙씨 등과 함께 가두방송을 맡아 시민 참여를 호소한 인물이다.

5월 27일 새벽, 흥보차량에 올라 마지막 항쟁의 밤을 기록하며 오전 3시까지 광주 시내를 돌며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총칼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킬 것입니다.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기도방송을 했다.

이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문구를



12·3 불법 비상 계엄 1년을 앞둔 2일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시청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보면서 45년 전의 장면이 순식간에 겹쳐 보였다”며 “눈을 떤 번이고 비볐지만 화면은 그대로였다. ‘끔찍하다’ 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비상계엄이 수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날의 밤은 쉽게 지나지 않았다.

이씨는 “5·18을 겪은 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마주한 현실이 맞는지 당황스러웠다”면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무효화 됐지만 온 몸에 소름이 끼쳐 며칠 밤을 설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이없고 황당한 뿐이었다.

운동권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5·18을 경험했던 이들도 미친가지였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한동안 평온을 되찾은 줄 알았던 몸은 비상계엄의 기억을 정확히 물집고 있었다.

밤마다 엄습하는 공포감에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금남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린 집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80년 5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했던 현장에 다시 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회에 참여하자는 권유도 많았지만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웅크리고만 있었다”고 전했다.

진행 중인 내란 주도세력 재판 과정 역

시 그에게 또 다른 무력감을 안겼다. 이씨는 “비극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란 세력을 두둔하거나

5·18의 진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짚답하다”며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법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내란 공범처럼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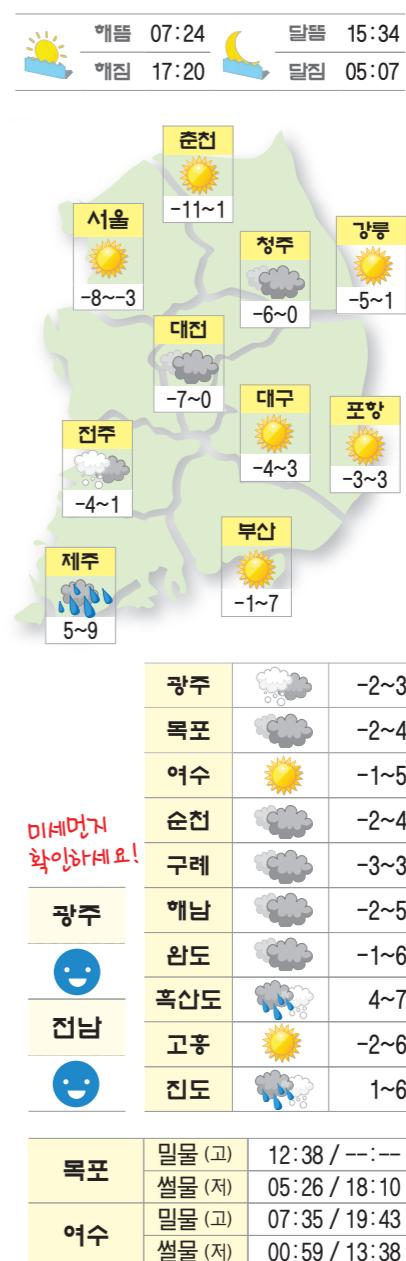
하니 무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끝으로 “5·18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선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냉혹한 심판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12·3 비상계

오늘의 날씨



음주운전 전복사고 낸 40대

만년필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부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40대 A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 광주 서구 광천동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돌한 뒤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변전기와 가로등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타 지역에서 출장차 광주를 방문한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 영하 4도 ‘추위 절정’

기상청, 올해 ‘첫눈’ 예보

광주·전남지역 추위가 3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첫 눈 소식이 예보됐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이날 예보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밀드겠다.

이번 추위는 4일 오후부터 풀리겠으며, 주말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맹추위와 함께 광주 지역에는 올해 첫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지역에 첫 눈이 관측될 경우 평년(11월 29일)보다 4일 늦고, 지난해(11월 27일)보다는 6일 늦은 기록이 되겠다.

전남 목포 지역에는 지난달 19일 공식적인 첫 눈이 내렸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북부서해안 3~8cm, 전남 서해안(북부서해안 제외) 1~5cm, 광주·전남 중부내륙은 1cm 안팎이다.

특히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는 3일 오전 전남 북부서해안(영광)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눈이 내려 주의가 필요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철위 전원 기피 신청

공청회 잠정 연기 결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 전원과 조사단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사고 위에 공식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조사위원·조사단원 전원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국토부장관과 항철위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실질적인 조사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도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계, 공항 시설·관리·감독의 주무부처로, 전남경찰청이 입건해 수사 중인 ‘핵심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위원 상당수가 국토부 전·현직



항공 기내식 만들기 체험 소화아람일터 장애인들이 2일 오후 남구에 위치한 광주대 식품영양관 실습실에서 열린 항공 기내식 만들기 체험 활동에서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 및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과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